

“정보전략형 대형유통센터로 기능해야”

제6차 출판연구소 포럼에서 제안... ‘표준 유통총목록’ 필요성도 제기

낙후된 유통구조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출판계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한국출판연구소(이사장 김경희)와 한국출판유통주식회사(대표 윤석금)는 지난 4일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21세기 출판유통 선진화방안>을 주제로 한 제6회 출판포럼을 개최했다. 이중환(서울신문 논설위원), 허창성(평화출판사 대표), 김종수(한울 대표)씨의 주제발표와 한국출판유통(주)의 사업계획 및 운영보고, 패널 토론과 자유토론으로 이어진 이 행사에는 출판·서점·도매상 관계자 150여명이 참가했다.

혁명적 전환이 핵심

출판유통계의 개혁은 공익성에 기반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과 유통기구가 대형화·정교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발표자들의 주요논지였다. 먼저 이중환씨는 <독자가 바라는 출판유통 구조>라는 주제발표를 통해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정상화로 도서구매를 높이고 일반서점의 서비스 개선과 질을 옹호하는 출판풍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좋은 책은 지속적으로 서가에 진열되어야 하며 정가의 다층화, 북클럽제도 활용, 유통센터 설립 등을 통해 공익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도서유통의 과거·현재·미래>를 통해 해방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도서유통의 연혁을 살피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한 허창성씨는 미래유통체계로 로지스틱스(logistics:조직적 물류)를 강조했다. “급변하는

멀티미디어시대에서 새로운 유통기구는 수배송·포장·창고·하역정보를 총괄하는 로지스틱스를 중심으로 틀을 짜고 거기에 상적 유통과 금융기능이 결합하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

허창성씨의 발표에서 개념이 제시된 로지스틱스와 정보화 논의는 김종수씨의 <우리나라 출판유통의 개선방향>에 이르러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됐다. 유통기구의 도매기능에 대해서는 “일원화된 정보체계가 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한국출판유통은 대형도매기구가 아닌 대형유통센터로 나아가야 한다. 선진국의 도서유통은 전체 물량의 70~80%가 공급서비스회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매와 공급서비스기능이 잘 분화·발달되어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덧붙여 표준유통총목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대형유통기구의 필요성, 그 시스템의 방법론과 현실론은 토론을 통해 활발히 전개되었다. “한국출판유통(주)은 IT(Information Technology)화된 정보전략형 대형유통기구로 기능해야 한다”(손재완·영풍문고 전무이사)는 논의와, 유통센터로서의 역할 이전에 도매기능부터 시작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도매기능을 하더라도 유통센터의 주품목을 정해야 충돌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밖에 한국출판유통에 바라는 기대사항과 현안 문제점들도 활발히 거론되었다. “한국출판유통이 장기적으로는 정보·관리·



지난 11월 4일 출판 강당에서 열린 제6차 출판포럼.

경영컨설팅 서비스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한기호)는 제안과 “한국출판유통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주문체계와 일배주문을 만족시킬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반품재고에 대한 대책, 물류량 보존, 도서분류의 특화, 개별출판사 판매부진 도서의 판촉, 정보의 독점화, 조세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김병준·지경사 대표)는 문제점들도 지적되었다.

실천적 사업 실행할 단계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도서유통기구에 대한 인식과 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임건석·출판영업인협의회 회장)는 의견도 있었는데, 올해 출범한 한국출판유통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다는 것이 출판계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한국출판유통이

발족한 이후 유통지형이 어떻게 변화할지 막연하여 매우 조급한 반응을 보이는 도매상들이 있다는 것. 박종성(고려북스 대표)씨는 “한국출판유통의 출범 이후 기존 도매상이 딜레마에 빠졌다. 향후 계획이 선명하지 않아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난감해 하고, 특히 출판유통의 지방도매상 흡수 계획이 나돌고 있어 일부 도매상들은 손을 놓은 상태”라고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97년 출판시장을 전면개방해야 하는 시점에, 어렵게 합의에 이르러 발족한 종합유통기구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포럼에서 논의됐듯이 성급한 판단과 조바심으로 일을 그르치게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계속 원론적 이야기만 반복하거나 수시로 방향이 뒤바뀌는 소모전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마정미 기자

인재를 찾습니다.

제2의 전성기를 맞아
힘찬 도약의 준비를 하고 있는
아동물 전문 출판사인 계림에서 성실하고
창의력을 지닌 인재를 찾습니다.
저희는 그냥 스쳐지나가는
일터가 되기보다는 자신으로 인하여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일터로 만들어갈
추진력 있는 분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계림출판사 법전출판사

<계림>

	자 격
영업부	유아물 경험자 환영
편집부	영어에 능한 자
디자이너	맥킨토시 경력자
경리	여상 줄

<법전>

편집부	법서 편집 경험 있는 자
-----	---------------

종로구 평동 13-67 전화)722-7672~4 FAX)739-0124